■ 민족문화연구 제84호(2019.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447-469.
http://doi.org/10.17948/kcs.2019..84.447

# 조선후기 설화 속 하위계층의 주체화 문제 고찰*
## —증여를 통한 관계의 재구성과 도덕적 정당화 방식—

홍나래(洪나래)**

목 차

1. 서론
2. 규범적 신분 관계의 균열과 탈주 양상
3. 하위계층의 주체화 방식과 인정의 문제
   : 신성으로의 탈주 및 초월적 증여의 시도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후기 이야기들 중 트릭스터 유형인 〈곰과 싸운 노귀찬〉, 노비의 신분상승 유형인 〈양반 행세한 최승선〉, 보은담 유형인 〈금비녀를 찾아준 선비〉를 중심으로 하위계층 등장인물들이 양반들과 맺는 새로운 관계 정립의 문제에 주목하여, 이들의 도덕적 정체성과 인정, 신분 윤리에 대한 저항과 균열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인 자신들의 욕망을 열렬히 좇다가, 결국 현실의 규범과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신화·영웅시대의 질서를 모방하거나 후하게 베풀거나 기도를 하면서 공동체의 근본적인 도덕 질서를 환기시키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맺음을 시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6545).
** 성공회대 신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도하게 되었다.

신성하거나 초월적인 힘에 대한 믿음은 공동체에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이성을 넘어서는 판단의 근거로 작동하게 되는데, 신화적 폭력으로 인정투쟁을 벌인 노귀찬뿐만 아니라, 최승선과 서리 처에 나타난 초월적 증여에서도 체제전복적인 폭력·힘이 내재되어 있었다.

곧 하위계층 인물들은 폭력이나 선물, 축복을 통해 강렬하고 위협적으로 기존 신분질서와 규범을 흔들면서 기득권에 주체로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당대 하위계층이 기존 사회의 윤리·규범을 따르면서도 새로이 자신의 도덕적 위상을 세우며 힘 있는 존재로 자기 삶을 전환시키길 강렬히 지향했기 때문이다.

**주제어: 기도, 하위계층, 주체화, 증여, 도덕적 정당화, 인정 투쟁, 노귀찬, 최승선.**

## 1. 서론

전근대 이야기에서 하위계층은 윤리적·도덕적일 수 있을까?[1] 『학산한언』의 〈京中士人沈姓者〉(이하 〈충효열을 지킨 여종〉)는 어린 여종이 주인에게 충성을, 남편에게 절개를, 부모에게 효도를 다 했다고 칭찬하는 이야기이다.[2] 미담 같지만 추노하러 간 주인이 종의 딸을 첩으로 삼고 그녀의 희생으로 살아남아 추노에 저항하는 노비들을 단호하게 응징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노비들은 주인을 죽이려 모의하는데, 또 다른 추노 설화인 〈휘흠(徽欽)〉처럼 노비들의 무지를 직접 강조하지는 않았지만,[3] 그래도 노비들은 옷을 바꿔 입었

1) 도덕(moral)과 윤리(ethic)는 상호 통용되기도 하지만, 우리말의 경우 사회적 규범을 의미할 때에는 윤리, 개개인의 심성이나 덕행을 가리킬 때는 도덕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이정우의 경우, 도덕이란 옳고/그름의 문제이고 어떤 초월적 가치에 따라 행해야 할 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윤리란 좋음/나쁨의 문제로 '倫'은 사람들 사이에 성립하는 질서의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정우 『개념-뿌리들』, 그린비, 2014, 525-530면. 본고에서도 이러한 차이로 용어를 사용하여, '하위계층이 기존 신분 윤리에 저항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2) 이 설화는 『청구야담』, 『계산담수』, 『파수편』 등에도 전한다. 본고에서는 가급적 각 편 제목을 이야기 내용이 드러나도록 쓰겠지만, 〈휘흠〉설화처럼 기존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유형은 그대로 쓰기로 하겠다.

3) 〈휘흠〉이야기에서 추노하러 간 주인은 노비들에 의해 위기에 몰리게 되자 관가에 보낼 편지에 이름 대신 휘흠(徽欽)이라 썼고, 이에 관가에서 그 뜻을 짐작하여 주인을 구출하고 노비들을 처치한다. 정준식, 「휘흠이야기의 개변양상과 의미변화」, 『국어국문학』 제33집, 부산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6 참고.

다고 여자와 남자를 그것도 자신들의 친인척과 손님인 주인을 구분하지 못했고, 주인인 줄 알고 소녀를 살해한 후에도 우왕좌왕하다 모두 한곳에서 잡히는 등 잔인하면서도 불안정하고 미숙하게 행동하는 인물들로 그려진다. 이에 반해 주인과 관리는 소녀의 아버지를 특별히 살려주는 관대한 지배자이자 정문을 세워 소녀를 영원히 기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이야기에서 추노하는 주인의 잔혹함과 폭력성은 은폐되고, 노비들의 분노는 폭력과 야만으로 혐오된다.

여인, 노비, 심지어 도둑이 보여주는 윤리・도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수이지만, 신분제의 모순과 갈등이 격화되던 조선후기 상황에서 윤리와 도덕을 논하면서 주도권을 잡았던 세력은 분명 기득권층이었다. 하위계층이 보여주는 충・효・열 이야기가 비록 행위를 통한 그들의 사회적 자아실현의 양상도 보이지만,[4] 다양한 경로로 선비가 윤리적인 주체로 성장하고 인정받는 이야기들에 비해[5] 하위계층이 윤리적인 인물로 인정받는 과정은 개인의 목숨이나 욕구를 버리는 자기희생이 더욱 고통스럽고 철저하게 그려진다. 무엇보다도 양반들은 하위계층이 삼강을 지켰다고 해서 그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윤리적・도덕적 주체로 인정하기보다 공동체 윤리 교화의 모범으로 삼거나 기득권층에 각성을 촉구하는 사례로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처음의 질문을 '전근대 이야기에서 계급 갈등 의식 혹 신분상승・인정에의 욕망을 품은 하위계층이 직역이나 경제력 등으로 윤리적・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기존의 윤리・도덕관을 지닌 하위계층

4) 대표적으로 열행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자아실현 욕구에 대해서는 강진옥,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여성학논집』 제12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95;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 연구」, 『성곡논총』 제30집 1권, 성곡언론문화재단, 1999; 이경하, 「『삼강행실도』의 폭력성 재고—열녀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5) 필자는 조선후기 설화에 나타난 사대부 계층의 윤리적 주체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문에서 논의하였다. 홍나래, 「조선후기 가부장 살해 소재 설화의 문화사회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42집, 한국구비문학회, 2016; 「조선후기 문헌설화에 나타난 주체의 윤리적 위기의식과 책임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제53집, 한국고전문학회, 2018a; 「조선후기 남녀 간 응보적 관계 맺기 설화를 통해 본 윤리적 주체 형성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제51집, 한국구비문학회, 2018b.

이 폭력이[6]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로 바꾸어본다면,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후기는 신분제도가 문란해지고 새로운 사상과 윤리에 대한 갈증이 강렬해진 시대였다. 그래서 당대 사회에서 동등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이들이 가졌던 주체·인간에의 열망이 다양한 이야기 속에 포착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에서 인정받는 주체란 결국 도덕적인 인간, 스스로 자유롭게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라 할 때, 하위계층의 주체화 문제는 결국 신분 규범·차별에 대한 저항의식을 서사에서 어떻게 보편적 도덕성으로 구현하는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당대 신분 규범에 대하여 문제적 인식을 가진 하위계층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상하를 아우르는 보편적 도덕성으로 계층 갈등·벽을 뛰어넘고자 했거나 소통을 모색하는 방식 등 조선후기 사회의 고민과 지향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다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출발로서 우선 건달 혹 트릭스터 유형 설화,[7] 노비의 신분상승 유형, 보은담 유형에서 각각 대표적 사례를 꼽아 논의하고자 한다.

## 2. 규범적 신분 관계의 균열과 탈주 양상

### 1) 뱃사공 노귀찬에게 직역(職域)의 의미와 폭력성

『청구야담』의 〈肆舊習與熊鬪江中〉(이하 〈곰과 싸운 노귀찬〉)[8]은 노귀찬(盧貴贊)이라는 독특한 인물 형상으로 인해 일찍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

6) 폭력의 정의는 일차적으로 신체적인 공격행위를 뜻하지만, 본고에서는 이와 함께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구조적 강제력이나 배제·억압과 같은 비물리적 폭력 작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위계층의 폭력에 대해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대항적 폭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폭력」,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참고.

7) 본고에서 살필 노귀찬이란 인물은 김선달·방학중·정만서 같은 트릭스터와는 사뭇 성격이 다르나, '중세의 모순에서 배태된 새로운 형상'으로 자유분방하게 권위에 도전하는 반사회적 트릭스터라는 김준형의 연구에 공감하기 때문에 트릭스터 유형으로 언급한다. 김준형, 「야담에 등장한 트릭스터와 소설적 지향」, 『남도문화연구』 제31집,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6 참고.

8) 『동야휘집』 〈簫漢面篷被客杖〉도 같은 내용이다.

성기동은 주인공 귀찬의 이름을 '귀찮다'의 음차로 읽으면서, 인물의 행위를 민중의 각성으로 보고 체제 갈등과 민중들의 좌절 및 희망에 대해 읽어내고자 했다.[9] 김준형은 이 이야기의 출전을 박준원(1739-1807)의 『금석집』에 실린 〈書船人盧貴贊事〉로 밝히며, 원 글에 있던 노귀찬에 대한 부정적 논평이 야담에서 사라지면서 인물의 행위를 권위에 대한 도전·민중성으로 해석하는 데에 더 나아가도록 했고, 그의 인물상에 대하여 중세의 모순을 발견한 민중, 순종을 거부한 반사회적 트릭스터로 평가했다.[10]

노귀찬이란 인물이 기존 사회에 대해 저항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을 보여준다는 선행 연구에 힘입어, 본 장에서는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을 통해 노귀찬에게 규범적·윤리적 삶이란 무엇이며 그의 저항이 어떠한 의미인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를 위해 그 줄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노귀찬은 재상가 종으로 도망가서 여주에서 배를 부리며 살았는데 나쁜 뱃사공으로 악명 높았다. 어느 날 그가 배를 몰 때 강가에서 배를 태워달라는 초라한 선비를 우롱했는데, 갑자기 선비가 배 안으로 날아와 그를 꾸짖으며 총으로 귀찬의 상투를 날렸고, 볼기를 때려 뱀 같은 상흔을 남겼다. 귀찬이 생업을 버리고 다시 서울을 왕래하다가 하루는 술에 취해 순라군을 발로 차서 장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순라군 대장이 뱀을 싫어하는 자라 귀찬의 상처를 보고 처벌을 미루었더니 이를 틈 타 도망쳤다. 귀찬은 3년간 나가지 못했는데, 백 사람이 먹을 만한 큰 곰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곰을 찾아가 막대로 힘껏 치고 도망치다가 쫓아온 곰과 물속에서 싸운다. 많은 구경꾼들이 보는 가운데, 귀찬이 죽었고 곰은 유유히 사라졌다.(한문본은 이후 포수가 곰을 죽였다는 내용이 있다)

---

9) 성기동은 인물들을 각 시대의 신분계층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보아, 옛 상전은 권한을 잃어가는 벌열층, 귀찬을 꾸짖은 조대는 비판적이나 기득권을 버리지는 못한 몰락양반, 귀찬에게 수모를 당한 선비는 무능하고 부패한 세속 선비, 포도대장은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 곰은 완강한 봉건사회라고 해석한다. 포수의 충격에 곰이 죽었다는 것을 새 질서의 도래 암시라거나 노귀찬 부활로 설명하는 등 화소를 자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하기도 했지만, 민중의 각성을 중심으로 작품의 소재, 시점, 구성 방식에 주목한 의의가 있다. 성기동, 「문헌설화의 상징적 해석 가능성 연구」, 『研究論集』 제11집, 중앙대 대학원, 1992.

10) 김준형, 앞의 글; 그 외에도 정환국은 18세기 후반 한문단편의 성격을 세속화적 경향으로 살펴보면서, 노귀찬과 같은 인물이 비정상적인 악행을 저지르며 흥미롭게 등장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환국, 「18세기 후반 한문단편의 성격—한문단편의 세속화적 경향과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제54집, 한국고전문학회, 2018.

노귀찬은 나쁜 뱃사공(惡船人)이라고 불린다. 그는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친 노비인데 뱃일을 하면서도 못된 짓을 골라 한다. 과거 보러 올라가는 소년을 목적지가 아닌 곳에 속여 떨어뜨린 후 달아나거나, 양반이 천박한 인물과 말싸움하기 싫어 무시하고 있으면 이들을 물에 빠뜨려 곤혹스럽게 만들고서 자기는 유유히 수영을 하며 욕을 해댔다. 선비의 일만 해도 그렇다. 귀찬은 배를 저어 가다가 힘없는 양반을 보고 배를 태워주는 척 그를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만들었다.

노귀찬에게 물 위의 배는 활기찬 일터이다. 바깥세상이 신분으로 계층화되었다면 물 위의 배에서는 수영할 줄 알고 배를 부릴 수 있는 노귀찬이 중심이다.[11] 귀찬은 자기 때문에 양반들이 당황하거나 힘들고 화가 나도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안전하게 가야했기에 참는 것을 즐겼다. 배로 강을 건너는 잠깐 동안의 전도된 세상, 노귀찬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양반들이 평소 느끼지 않았을 불편한 상황들, 살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행위와 판단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몸과 마음이 고되거나 분노하더라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양반들도 느끼게끔 하였다. 노비에 의해 타자화되는 듯한 그 순간을 양반들은 참을 수가 없었다.

양반이 세상에서 위세 하듯 자신도 직역에서 등등하려던 노귀찬에게 규범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삶이란 어떠한 것일까? 귀찬은 선비에게 볼기 세 대를 맞았는데, 한 대 한 대 매가 살에 묻혀서 막대가 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고도 하니, 예사롭지 않은 선비는 가르침이라며 공동체 삶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귀찬에게 새겨 넣은 것이다. 귀찬은 짧은 시간 동안 수없이 죽어본 것 같은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며 이후 여간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되었지만, 이는 단지 선비에게 당한 공포로 뱃일과 대인 관계에 일종의 마비 증상이 온 것뿐이었다. 사실 양반이라도 자신의 능력이나 기질을 마음대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귀찬을 혼낸 선비조차 날아갈 듯 빠르게 걷고 멀리 솟구

11) 성기동은 노귀찬이 도망가서 뱃일을 한 것은 넓은 강 위에서 속박받지 않고 自在할 수 있는 삶을 택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는데, 본고는 노귀찬의 주체적인 인간성을 처음부터 강조하기보다 노동을 통해 본성을 더욱 잘 드러내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노골적으로 시험하게 되었으리라 본다.

칠 수 있으며 강한 팔 힘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늘어진 봇짐에 총을 갖고 다니는 이인(異人)과 같은 인물이지만, 겉으로는 늙고 병약하고 가난하게 지내면서 능력을 숨기고 있었다. 순라군 대장이 뱀과 비슷하게 생긴 것조차 꺼려해서 다른 이에게 형벌을 미룬 것처럼, 사람들은 남다른 능력이나 감정을 억누르고 맞춰가며 살아가야 했지만, 귀찬에게는 그 과정이 마치 지속적으로 공포증을 겪는 것과 같았다. 그는 생업을 지속할 수가 없었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점점 우울해졌다. 매를 맞은 후 1년에 걸쳐 몸은 회복했지만, 규율과 형벌에 대한 정신적 외상이 남아 순라군 대장으로부터 도망친 후에는 3년간 나가지도 못했다.

노귀찬은 사실 겁이 많은 인물이기도 해서, 힘없는 선비를 비웃으며 도망치다가도 그가 용솟아 배에 뛰어오르자 납작 엎드려 죄를 청하고, 그의 말대로 꿇어앉아 눈치만 보며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오랜 기간 나가지도 못한 채 있다가 마침내 배를 타고 상류로 나와 놀다 곰을 때려잡으러 간다.

> 귀찬이 〈듣고〉 급히 배를 저어 바위 아래 대고 인하여 손에 상앗대를 가지고 그 바위 위에 (바로) 올라보니 곰이 바야흐로 잠이 깊었는지라. 힘을 다하여 치니 그 곰이 크게 놀라 일어나 〈소리를 흉악히 지르며〉 큰 돌을 뽑아 내리치니 그 소리가 큰 북소리 같아서 바로 귀찬을 향하여 달려드니 귀찬이 쫓기어 달아난즉 곰이 또한 쫓아오는지라. 귀찬이 배를 〈급히〉 저어 상류에 이르러 (머리를 돌려) 돌아보니 그 곰이 이미 배꼬리에 다다랐는지라. 귀찬이 (또) 돛대를 들어치니 그 곰이 돛대를 빼앗아 꺾어 버리거늘 귀찬이 또 다른 돛대를 들어치니 곰이 또 빼앗아 버리는지라. 귀찬이 배 가운데 다시 칠 기계가 없는지라. 다만 빈손으로 어찌 곰을 당하리요? 그 곰이 (이에) 배를 잡아다니니 배가 장차 엎어지는지라. 귀찬이 황급히 피코자 하여 스스로 잠외약질 잘함을 믿어 몸을 번드쳐 물로 들어가니 곰이 또 〈쫓아가〉 물로 들어간즉 이날 강변에 구경하는 자가 구름같이 모이었더라.[12]

12) 인용문에는 김동욱・정명기 역, 『청구야담』, 교문사 1996의 현대역 번역을 그대로 싣는다. 『청구야담』의 경우 현대역 번역에서 '[ ]', '〈 〉' 표시로 한문본과 한글본의 특성을 구분했는데, 본문에서 '( )'의 표시는 한문본에만 있는 내용이고 '〈 〉'은 한글본에만 있는 내용이다.

노귀찬 이야기가 인상적인 것은 무엇보다 곰과 싸우다 죽은 그의 최후 행동 때문이다. 패배가 자명한데도 곰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노귀찬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체제 도전자의 비참한 말로,'[13] '철저하게 지배 이데올로기에 패배'한 '반사회적 트릭스터'로서 '마지막 속임수가 죽음이라는 것은 규범을 넘어선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고자 한 암시'라고도 해석하였다.[14] 그는 과연 죽으러 간 것일까?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고자 한 암시라면 그 죽음의 방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귀찬은 선비에게 당한 두려움에 더 이상 일도 못하고, 함부로 나다니자니 국법으로 잡혀갈까 두려워 쥐 죽은 듯 지냈다. 그는 선비·공권력에 대한 공포로 체제 규범에 맞추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3년의 울울한 시간은 결국 노귀찬에게 또 다른 결단을 하게 한다. 스스로 기질을 죽이고, 자신의 일터에서조차 힘 있는 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선비의 회초리나 권력자의 사형 선고보다 더한 고통인 셈이었다. 오랜 시간을 고통 받으며 자신을 위축시키던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최후 혹 최초가 될 행동을 개시한다. 바로 노귀찬대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것인데, 두 번이나 혹독하게 좌절했던 만큼 이제는 그 규범의 공포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만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스스로 신화 영웅적 투쟁을 결정한다. 그가 신화적 영웅이 된다면 세상은 영웅인 자신의 가치로 다시 질서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귀찬의 엉뚱하고 찬란한 투지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지점이다.

귀찬이 잡으러 간 곰은 100명이 먹을 만큼 살진 곰이었다. 아마도 곰을 잡으면 사람들과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총도 아닌 상앗대(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막대)로 곰을 때려잡으러 갔다. 자신의 일터에서 주요하게 사용하는 도구로써 용맹을 펼칠 예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화적 상상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난 곰이 바위를 뽑아 내리치며 귀찬을 쫓았고, 귀찬과 곰은 산으로부터 배 위로, 돛대를 던지고 꺾어 뺏다가 결국 물속으로 도망치고 따라 들어갔

13) 성기동, 앞의 글.
14) 김준형, 앞의 글.

다. 이들의 급박한 움직임은 운동 경기처럼 관찰되면서 구름 같은 구경꾼들을 모았다. 사람들이 누구도 돕거나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은 곰과의 싸움이 황당하고 두려워서겠지만, 또한 보통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귀찬의 영역인 물속에서 이루어진 데다가 곰과 사람이 갑작스럽게 엉켜 싸운 기운이 마치 '용이 싸우는 듯'한 투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귀찬의 죽음을 바라본 다수의 사람들은 무책임한 목격자라기보다 노귀찬의 목숨 건 투쟁을 충격적이고 안타깝게 바라보며 강렬한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이 된다. 아무리 '악한 뱃사공'이라도 인간이 목숨을 걸고 짐승과 혈투를 벌일 때에 이를 보는 사람들이 짐승의 승리를 바라지 않는다. 만약 짐승의 승리를 바란다면 이로써 그 사회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작심하고 비난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도덕성 붕괴를 걱정해야 한다.[15] 한문본에서 곰이 포수에 의해 죽었다는 언급도 이러한 맥락에서 덧붙여졌으리라 보인다. 곧 수많은 목격자는 악했다던 노귀찬의 수상한 행적을 곱씹고 왜 거대한 짐승과 싸워야했는지 생각하며 전달하는 이야기의 전승자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 2) 성공한 노비의 자기고백과 선물

조선후기 야담에는 노비들이 부유하게 일가를 이루고 신분을 속이며 사는 이야기들이 다수 전승되었다. 주인이 추노하러 갔다가 재물을 받고 오거나 위기에 처해지는 등 노비들의 성장은 이야기의 배경이나 주요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노비가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며 주인에게 인정받게 된 대표적인 유형으로 『청구야담』의 〈宋班窮途遇舊僕〉(이하 〈양반 행세한 최승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설화는 구비설화 〈박문수 친척된 사람〉으로도 널리 알려진 유형인

15) 김준형에 의하면 박준원은 〈書船人盧貴贊事〉에서 지배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저자의 입장으로 '곰에게 죽음을 당한 것은 당연한 일일진저! 비록 그러하나 곰이 귀찬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귀찬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라며 노골적인 불만의 논평을 썼는데, 그 역시 인물의 민중성을 읽어내고 장황한 논평으로 애써 가리고자 했다는 것이다. 김준형, 앞의 글, 277면. 박준원과 같이 아무리 노귀찬에 대해 부정적인 저자라도 곰에게 잘 죽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는다.

데,[16] 구비설화에 비해 문헌에서는 도망 노비 막둥이가 양반 최승선이 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조선후기 신분 상승 과정에 대한 안내를 압축한 듯하다.[17]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① 송씨 양반 집에는 과부 며느리와 어린아이만 있었는데, 어느 날 종 막동이가 사라졌다.
② 수십 년 후 아이는 자랐지만 집이 점점 빈궁해지자 관동지역 관리로 간 친구에게 부탁하러 가다가, 어느 고개를 넘어 큰 마을의 장자 최승선 집에 묵었다.
③ 노인인 최승선이 송씨를 알아보고 자신이 막동이라고 절하면서 도망쳐 양반성을 얻어 부자가 되고 혼인 후 관직까지 하고 은거하게 된 과정을 고하였고, 송씨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를 이해했다.
④ 최승선이 일가에 송씨를 재종질로 소개하여 두루 환대한 후 만금을 주어 보냈다.
⑤ 송씨의 사촌 중 성질이 음독한 험피가 사실을 캐어묻고 최승선을 벌하러 떠나자 송씨는 승선에게 편지를 써 이를 알렸다.
⑥ 최승선이 사람들에게 침술 공부를 했더니 광질을 앓는 친척이 방문할 것이라고 알린 후, 험피를 광에 가두고 침으로 찌르며 협박했다.
⑦ 험피는 최승선을 숙부라 부르며 승복했고 3천 냥을 받자 감사하면서 비밀을 지켰다.

최승선은 노비 막동이였던 어린 나이에 이미 주인 집안의 가세가 기울 것을 판단하여 어느 날 밤 몰래 도망친다. 그는 단지 가난을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하인의 천한 구실을 말자'는 원대한 뜻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양반인 최씨 가문 중 후사가 없는 집에 의탁하여 성을 얻고, 서울로 가서 재물을 모아 수년 안에 부자가 될 정도로, 강인한 생활력과 근성을 가지고 온갖 정보를 모으고 치밀하게 행동했다.

16)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별책인 『한국설화유형분류집』, 조동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에서 322-3 '백정의 계략으로 조카가 된 박문수' 항목에 속한 이야기이다. 구비설화 제목의 경우 『한국민속문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2의 표제를 따랐다.
17)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2014에서는 1678년 호적에서 심정량의 노비 수봉의 가계가 1849년 안동 김씨 양반으로 내세우게 된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200년 동안 지난하게 진행된 신분 상승에의 행적을 〈양반 행세한 최승선〉에서는 한 사람의 일생 속에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승선은 재물을 모은 후에는 지역을 이동해가며 본격적으로 양반 행세를 하게 된다. 그는 부지런히 글을 배워 양반이 지녀야 할 학문을 습득했고, 이후 두문불출하며 글을 읽어 사대부의 행실이라 칭찬을 받는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부자들에게 뇌물을 후하게 주며, 화려하게 치장한 이들을 유명인으로 사칭시켜 초대하면서 이웃의 신뢰를 구축한 후에는 영평에서 철원, 또 회양으로 옮겼고 마찬가지로 곳곳에 좋은 평판을 남겼다. 그는 재취한다면서 무변의 딸과 혼인도 해서 자식들을 낳아 모두 양반가와 통혼하고 벼슬도 승선까지 올랐다가 이내 물러나와 고성 인근 골짜기에 크게 일가를 거느리고 살게 된다. 그만큼 스스로를 제어하고 일의 진퇴를 정확히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최승선은 칠순이 되어도 눈이 영롱하고 밝아서 고을을 찾아온 과객들을 자세히 살피며 대접하였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온 가난한 송씨 선비를 보고 그가 바로 옛 주인집의 어린 손자였음을 알아본다. 그러자 최승선은 송씨를 조용히 불러 자신을 밝힌 후 '상전의 은혜를 입고도 몰래 도망간 죄, 믿어준 마님의 뜻을 저버리고 영결한 죄, 이름을 바꾸어 관직에 오른 죄, 부귀하면서 소식을 끊은 죄, 옛 주인을 나그네처럼 대접한 죄'를 고하며 '바라건대 상공은 장지책지(杖之責之) 하시어 산 같은 죄를 만분지일이나 징계하소서'라고 빌었다.

최승선은 자신이 노비였던 사실을 부인과 자식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양반이라는 거짓말이 탄로 날까봐 젊어서는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정착할 수도 없었지만 이미 칠순이 다 된 노인이고 모두에게 호걸로 신뢰받는 존재였다. 그가 새삼스레 자신을 이미 잊었을 어린 주인에게 고백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주인에게 고한 죄란 노비들에게만 차별적으로 부여된 것인데, 과연 그가 이것을 죄라고 생각했을까?

최승선은 욕망하고 도전하는 자로서 결코 신분사회의 규범을 그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그는 치밀하게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를 이용했고, 칠순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강하게 지켜왔다. 그는 옛 주인의 일가인 험피가 도망 노비의 죄를 징치하려고 찾아오자 "내가 스스로 분의를 지키어 먼저 내력을 베

풀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좋은 말로 상대할 것이거늘 이제 홀지에 흔구(釁咎)를 집어내니 남을 망하게 한 후에 말려느냐?"라면서 그를 폭력적으로 위협하고 굴복시킨다. 이로 볼 때, 최승선이 주인 송씨에게 건넨 말은 실제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보다 옛 주인과의 호혜적인 관계를 타진하기 위한 수사라고 할 수 있다. 곧 죄의 고백과 곡진한 예우의 언사는 상대가 거부할 경우 언제라도 폭력적으로 돌변할 수 있었다.

최승선은 주인 송씨가 자신의 말에 호의적으로 답하자 모두에게 그를 재종질로 소개하면서 극진한 환대를 충분히 받게 한 후 막대한 재산을 선물한다. 비록 승선이 주인에게 낮에는 친척으로 칭하고 밤에는 노주의 예를 다하겠다고 제시했지만, 고독하고 가난하여 멀리 있는 친구에게 의탁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송씨는 최승선의 일가에게 친밀하고 정성스럽게 대접받고 또 막대한 재산까지 증여받아 풍족하게 살게 되면서 진심으로 그를 친척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사촌인 험피에게 승선의 존재를 밝히지 않으려 했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나자 이를 누구보다 승선에게 먼저 알려 위기에 대응하도록 했다. 송씨에게는 사촌보다 최승선이 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선의 자기고백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면서 옛 주인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초라한 주인의 위상과 정반대로 최승선은 화려하고 극적으로 성공했고 막대한 재산을 주인에게 증여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숙부 항렬의 어른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이로써 승선은 재종숙의 입장에서 양반인 험피의 징벌을 좌우하며 그의 복종을 이끌어낸다.

### 3) 기도하는 사람들 : 은혜에 대한 대갚음으로서의 축복

조선후기 이야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수 등장한다. 물론 기도란 어느 시대에나 나타나지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타인을 위해 정성껏 축원하고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조선후기 이야기판에서 유독 성행했다. 『청구야담』의 〈憐樵童金生作月姥〉(이하 〈중매를 선 김우항〉)[18], 『계서야담』의 〈江陵金氏

一士人〉(이하 〈아전을 구한 강릉김씨〉)[19]처럼 여러 문헌이나 구전으로 널리 퍼진 이야기들도 많지만, 이 장에서는 인물 사이에 베푼 은혜와 기도의 사연이 핵심적이면서 간략하게 제시된 『청구야담』 〈聽祝語宰相記往事〉(이하 〈금비녀를 찾아 준 선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20]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가난한 선비가 성균관에 과거를 보러 가다가 길에서 종이 봉지를 주었다. 열어보니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귀한 금비녀(金龍釵)였다. 선비가 잃어버린 사람이 반드시 찾으러 올 것이라 생각하여 길가에 서서 기다렸다가 당황하여 비녀를 찾는 여인에게 돌려주었다. 그 후 선비는 급제하여 수십 년 동안 고위 관직을 두루 맡았다가 이조판서가 되었다. 어느 날 서리의 집에서 잠깐 쉬었는데, 안쪽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길 옛날 금비녀를 주워준 어르신이 삼공육경하고 자손 만당하고 수부겸전(壽富兼全)하라는 것이었다. 그가 옛일을 기억하여 서리의 처가 심부름 중 비녀를 잃어버렸던 여인임을 알았다. 선비는 자신의 부귀영달이 서리 처의 기도라고 인사하며 그 후 왕래하였다.

선비는 값비싼 비녀를 줍고는 이를 들고 잃어버린 이가 찾으러 올 때까지 종에게도 맡기지 않고 스스로 기다리기로 한다. 과거 보러가는 자신의 사정보다 잃어버린 자의 막막함을 배려한 것이다. 이윽고 한 여인이 황황하게 비녀를 찾으러 오는데, 그녀는 친한 양반집의 혼수 물건으로 귀중한 금비녀를 사서 전달하다가 모르는 사이 흘려버렸고, 늦게야 이를 깨달아 길을 되짚어 오는 중이었다. 선비는 여인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꼼꼼히 물어서 확인하여 건네준 후,

---

18) 〈중매를 선 김우항〉은 김우항이 젊은 시절 가난한 양반의 딸을 부유한 참봉의 재취로 중매하여 여인의 모친이 25년간 '김우항 정승 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로, 『청구야담』 외에도 『동야휘집』, 『기문총화』, 『하담만록』, 『청구총화』, 『동국쇄담』, 『해동야서』, 『청야담수』 등 여러 문헌에 실려 있다.

19) 〈아전을 구한 강릉김씨〉는 가난한 선비가 추노한 돈 전부를 포흠한 죄로 사형에 처해질 아전을 구하는 데 준 후 고생을 하다가, 훗날 모친의 장지를 구할 때 아전 가족을 다시 만나 보답을 받는 내용으로, 여기에서 아전의 처는 매일 밤 분향하며 선비에게 은덕을 갚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다. 같은 내용이 구비설화로는 〈돈 천냥의 구원〉으로 알려져 있다.

20) 증여의 문제로 보은담을 살핀 연구는 이강엽, 「보은담(報恩譚)의 유형(類型)과 의미(意味)—"교환(交換)"과 "증여(贈與)"의 측면에서—」,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이강옥, 『한국 야담의 서사세계』, 돌베개, 201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본고는 보은의 여러 방식 중 물질이 아닌 '기도'가 보은으로 해석되는 서사를 중심으로 보은자의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크게 기뻐한 여인이 울면서 거주성명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고 떠났다.

잃어버린 물건 때문에 중죄를 질 뻔했던 여인은 선비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그 보답을 하고 싶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여인 자신도 하찮은 처지였다. 그래도 여인은 그때부터 매년 비녀를 찾은 날이 되면 떡과 음식, 술과 과일로 제물을 차려놓고 선비가 정승판서가 되고 자손이 만당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기를 신령에게 빌었다. 30년 동안 정성껏 그날을 기념하고 있었으니, 여인에게 비녀를 찾아 준 선비는 그녀의 사회적 삶을 살려준 은인으로서 조상처럼 의례를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서리의 집에서 기원의 소리를 듣던 선비는 '반드시 곡절이 있는 일이니 만일 실상으로 고하지 않으면 죄를 마땅히 요대치 않으리라'라고 명령한다. 국가는 저주를 극악 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했지만 조선후기로 갈수록 저주와 음사로 인한 고발·고변이 증가한 만큼,[21] 선비 역시 여인의 축원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를 씌우듯 사정을 탐문하면서 저주와 음사를 경계하였다.

하지만 옛 사연을 모두 맞추어 본 선비는 그 제사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사례로 서리의 처가 이름 모를 양반에게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자신이 베풀었던 배려로 인해 한 가정이 얼마나 안도하게 되었는지 듣게 되고, 더하여 여인이 해마다 자신의 행동을 기리면서 여러 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던 만큼, 가난한 선비였던 자신이 30년간 부귀영달하게 된 변화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선비는 '나의 부귀영달이 네 처의 정성소감(精誠所感)'이었다면서 자신의 성공을 30년간 정성껏 빈 여인의 덕으로 돌리며 그녀와 재회하고 이후 만남을 지속한다.

여인은 가진 것 없는 백성으로 양반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난 처지이지만, 그런 그녀도 자신보다 상위의 양반을 위해 무언가 소중한 선물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세속적인 물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도 변치 않았던 축복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여인이 30년간 축복한 힘은 세상의 어느 권력자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운명을 이끌어줄 힘으로 해석되면서 이조판

21) 배림아, 「조선후기 저주사건의 사례와 그 특징 :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2010.

서가 된 선비를 감동시킨다. 그리고 여인이 조상에 대한 제사의 형식으로 선비의 행적을 기억하고 선비가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표현했듯이, 여인과 선비의 관계는 위계의 신분 관계라기보다 제사를 통해 감응한 조상과 자손처럼 신분의 경계를 넘어 믿고 의지하는 친밀한 사이[22]가 된다.

## 3. 하위계층의 주체화 방식과 인정의 문제 : 신성으로의 탈주 및 초월적 증여의 시도

앞서 살핀 이야기를 볼 때, 노귀찬・최승선・서리의 처가 양반들과 맺는 새로운 관계 정립의 문제는 시대의 욕망과 연결되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장은 신분제 사회에서 이들이 어떻게 규범적이고 전형적인 관계성에서 벗어나 인정을 요구하거나 쟁취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이를 하위계층의 주체화[23] 문제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노귀찬・최승선・서리 처의 경우, 그들의 괄목할 만한 변화는 공동체 속에서 강렬하게 욕망하는 바가 생기면서이다. 그리고 그들은 능력이나 노력으로 욕망이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의지를 갖게 되면서 이전과 달리 행동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추동한다. 노귀찬은 배를 몰면서 양반들을 조롱했는데, 양반들이 할 수 없는 뱃일을 통해 자신이 자립할 수 있게 되자 더욱 자기 본성과 기질을 숨기지 않게 되면서 양반・순라군들과 갈등을 일으켰다. 최승선의 경우 누구보다 정확히 양반들의 허위의식과 체제 유지 방식을 꿰뚫게 되면서 영특한 본인이 부지런히 노력하면 그들보다 더 성공한 양반이 되어 인간답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서리의 처는 은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고 신분도 열등한 처

22) 한문본에는 오래 사귀어 온 친구처럼 왕래했다고 한다.

23) 주체의 의미는 여러 층위에서 활용되는 개념이지만, 본 장에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판단과 행위에 의해 개별적이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실체로 우선 정의한다. 곧 하위계층에 속한 인물들이 주인이나 양반들의 제도와 규범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가치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동하면서 주체로 인정받는(혹은 인정받으려는) 과정을 탐구한다. 물론 그들의 욕망과 행동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자율성도 고찰해야 하나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부터 살펴보겠다. 임석진 외, 「주체・주체성」,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참고.

지라 그다지 도움이 될 만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30년간 그 일을 기억하면서 선비에게 보답하고자 정성을 다한다.

그런데 한미한 여인이 선비에게 행복한 삶을 열어주는 것이나, 노비들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현실 세계와 규범에서 불가능한 꿈이었다. 특히 노귀찬은 뱃일을 하면서 양반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잘난 척도 하며 마음껏 성질을 부리려 했고, 노비인 최승선은 '하인의 천한 구실을 하지 말자'라고 다짐했으니 그들의 바람은 신분제 사회에서 권력층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반역적 시도이다. 그래서 이들은 신분이나 규범에 대한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에 상관없이 현실에서 불가능한 꿈을 열렬히 좇다 보니 결국 자신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지배층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들은 현실의 규범과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신화·영웅시대의 질서를 모방하거나 사회구성의 근본 원리인 증여의 힘을 환기시키며[24] 새로운 사회적 관계맺음을 시도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행동하고 변화해가던 인물들은 자신들에 대한 인정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노귀찬은 양반들과 관리로부터 위협을 받아 수세에 몰리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거대한 곰과 상앗대로 또 맨주먹으로 싸운다. 고대 영웅의 세계와 달리 현실에서 귀찬은 곰을 이기지 못했지만, 보통사람들의 상식을 뒤흔들며 최후의 항전을 벌이는 듯했다. 이에 비한다면 학문, 혼인, 부와 명성을 이용한 최승선의 도전은 매우 현실적으로 보이고, 제사를 지낸 서리의 처는 홀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빌기만 했으므로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신화의 시대가 아니므로 욕망하는 개인 노귀찬의 폭력적 질주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모두가 그런 방법을 따를 수는 없었다. 규범과 제도를 가로질러 욕망하는 개인이 사회에 수용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식, 즉 공동체에 후하게 베풀어 수증자인 양반·공동체 다수로 하여금 증여자에게 감사하며 그를 인정하게 만드는 사회적 삶의 도덕적인 기본 원리

24) 마르셀 모스, 『증여론』, 이상률 역, 한길사, 2011.

를 작동시켜야 했다.

야담에서 노비의 신분 상승과 그에 대한 인정에는 몰락한 후예와의 혼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풍족하게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덕스러움, 선견지명이나 우연히 얻은 보물로 양반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이한 행위들이 다수 등장한다.[25]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와 권력자들에게 뿌린 뇌물 정도로는 노비의 신분상승을 양반 세계가 용납하기 어려우므로, 서사에서 신성한 물건이나 예언적 정보의 증여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최승선 역시 양반가와 혼인하고 재물을 베푸는데, 다만 여기에서는 조선후기 사회에서 돈이 차지하게 된 가치의 변화를 대폭 수용하여 그의 압도적인 경제력이 강조되고 있다. 최승선은 관리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화려하게 치장시킨 이들을 초대하고 어디서나 넘치게 대접하여 모두의 인심을 얻으며 옮겨 다녔다. 특히 골짜기에 일가를 모아 마을을 형성해 장관을 연출하고 옛 주인 집안의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을 승복하게 할 만큼, 최승선이 쓰고 베푸는 재산은 상상을 초월한 규모로 그려진다.

서리 처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신분이나 경제력을 고려할 때, 증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제사와 축복을 통해 선비의 복을 빌어 준다. 선비는 여인의 지극한 정성에 기뻐하면서 그녀의 기도가 천지만물을 감동시켜 자신에게 발휘되었다고 인정하여 서리와 이조판서라는 격차에도 불구하고, 또 금비녀 사건 외에 어떠한 연고도 없었지만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여인의 기도가 거절할 수 없는 증여로 받아들여진 것이다.[26] 그녀의 축복은 돈과 물질적 가치가 팽배하던 세상에 도덕, 양심적 행동에 대한 민심의 호응으로 인정받아 은혜를 베풀었던

25) 지혜로운 여종이 몰락한 양반의 후예와 혼인한 후 보물을 얻어 주인에게 인정받는다거나(『청구야담』〈獲重寶慧婦擇夫〉, 〈擇夫婿慧婢識人〉) 명당을 훔친 후 달아났던 여종이 훗날 호랑이가 물어온 주인집 자손을 자신의 손녀와 혼인시키는(『청구야담』〈占名穴童婢慧識〉) 등, 노비들이 주인들에게 인정받는 과정에서 풍수를 비롯하여 신이한 물건이나 경험들이 제시된다.

26) 기도의 신령스러운 현상은 『청구야담』〈被室謫露眞齋折簡〉에서도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평안감사는 오랫동안 자신의 평안감사직을 축원한 집안에 막대한 재물을 보낸다. 심지어 축원했던 여인은 무능한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기도가 정성스러워서 평안감사는 꿈에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여인을 본다.

선비 역시 이에 감사하며 교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신성하거나 초월적인 힘 또는 그런 힘에 대한 믿음은 공동체에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감정[27]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성을 넘어서는 판단의 근거로 작동한다. 또한 후하고 관대한 증여를 통해 인심을 확보하듯이, 선물의 증여나 호혜적인 대갚음은 도덕적 삶의 기본 의무로서 상대에게 자신들의 존재와 삶에 대한 존중을 유도하며 교류를 요청하게 된다. 신화적 폭력으로 인정투쟁을 벌인 노귀찬, 초월적 증여라는 도덕적 공동체의 근본 질서를 소환한 이들의 도전은 지배층의 입장에서 기존 신분 질서와 규범을 흔드는 위협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초월적 증여는 그들의 행적에 따른 자명한 질문을 던진다. 최승선과 옛 주인 일가를 비교해서 누가 더 훌륭하고 더 양반 같은가? 은혜를 입은 백성의 지극한 기도처럼 원한에 찬 백성의 지극한 저주의 힘은 어떠할까? 최승선의 압도적인 증여에 행복하게 혹 비굴하게 복종하는 옛 주인들의 무기력한 삶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그에게 종속된다. 기도의 경우 감사와 염원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기득권에 긍정적으로 포섭된 듯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기도와 믿음에는 상대뿐 아니라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 역시 내재되어 있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은 상대에 따라 언제라도 저주가 될 수 있었다.[28]

그러므로 은혜와 기도를 통한 이들의 새로운 관계맺음은 현실세계의 권력과 계층의 분별을 넘어 백성을 매개로 전달되는 신성한 힘의 방향을 염두에 둔다. 그리하여 상호 신뢰 속에 소통하며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인격적이고 대등한 관계가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증여의 서사 장치에는 직접적인 폭력이 강조되지 않지만, 〈충효열을 지킨 여종〉에서 기득권의 자기보존 폭력이 세련된 형식으로 응원되는 것처럼 〈양반 행세한 최승선〉·〈금비녀를 찾아준 선비〉에서 초월적 증여는 온화한 교류와 인정 형식 속에 체제 전복적인 폭력

27) 루돌프 옷토, 『성스러움의 의미』, 길희성 역, 분도출판사, 1995.
28) 타자의 기도와 보답으로 단단해진 주체와 공동체는 그만큼 이들의 저주와 원한에도 취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홍나래, 앞의 글, 2018b에서 논의하였다.

을 내재하고 있다.

조선후기 하위계층이 등장하는 다수의 성공담과 보은담에서 넉넉한 베풂과 축복·기도가 등장하는 것은, 하위계층 인물들이 신분 사회의 윤리에 저항하면서도 공동체에 자신의 도덕적 위상을 자리매김할 수 있고, 때로 위축된 상황에서 출발하더라도 은혜에 대한 감사를 넘어 상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존재로 자신의 삶을 전환시켜 보다 호혜적이고 인격적인 공동체 관계가 형성되기를 강렬히 지향했기 때문이다.

## 4. 결론

조선후기는 신분제도가 문란해지고 새로운 사상과 윤리에 대한 갈증이 강렬해진 시대였던 만큼, 당시 사회에서 하위계층들이 가졌던 주체에의 열망이 다양한 이야기에서 포착되었다. 본고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주체란 결국 스스로 자유롭게 윤리적·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라고 보고, 일군의 이야기들 중 건달 혹 트릭스터 유형에서 노귀찬 설화를, 노비의 신분 상승 유형에서는 최승선 설화를, 마지막으로 보은담 유형에서는 〈금비녀를 찾아준 선비〉를 중심으로 삼아 도덕적 정체성과 인정, 신분 윤리에 대한 저항과 균열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세 유형군은 조선후기 활발히 전승된 대표적인 이야기들로, 본고에서는 하위계층 등장인물들이 양반들과 맺는 새로운 관계 정립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이야기 속 노비와 서리의 처는 자신들의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 노비처럼 살지 않거나 양반에게 보은하기를 꿈꾸며 스스로를 추동하였다. 이들은 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인 자신들의 욕망을 열렬히 좇다가, 결국 현실의 규범과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신화·영웅시대의 질서를 모방하거나 후하게 베풀거나 기도를 하면서 공동체의 근본적인 도덕 질서를 환기시키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맺음을 시도하게 되었다.

신성하거나 초월적인 힘에 대한 믿음은 공동체에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이성을 넘어서는 판단의 근거로 작동하게 된다. 신화적

폭력으로 인정투쟁을 벌인 노귀찬뿐만 아니라, 최승선과 서리 처에 나타난 초월적 증여도 온화한 교류와 인정 형식을 취하지만 상대에 따라 언제라도 폭력과 저주가 될 수 있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들의 행위에 체제전복적인 폭력·힘이 내재된 것으로 보았다. 곧 하위계층 인물들은 폭력이나 선물, 축복을 통해 강렬하고 위협적으로 기존 신분 질서와 규범을 흔들면서 기득권에 주체로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당대 하위계층 인물들이 기존 사회의 윤리·규범을 따르면서도 새로이 자신의 도덕적 위상을 세우며 힘 있는 존재로 자기 삶을 전환시키길 강렬히 지향했기 때문이다.

위에 살핀 세 유형군은 조선후기 윤리 규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활발히 전승된 대표적인 이야기들이지만, 유형마다 또 각 편 사이에서도 의미가 분화되거나 심도 있게 고찰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 ▮ 참고문헌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한국민속문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2.
『한국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김동욱・정명기 역, 『청구야담』, 교문사, 1996.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헌설화전집・동야휘집』, 민족문화사, 1981.
신돈복, 『국역 학산한언』, 김동욱 역, 보고사, 2006.
임석진 외,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강진옥,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여성학논집』 제12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95, 63-104면.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2014.
김준형, 「야담에 등장한 트릭스터와 소설적 지향」, 『남도문화연구』 제31집,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6, 265-291면.
루돌프 옷토, 『성스러움의 의미』, 길희성 역, 분도출판사, 1995.
마르셀 모스, 『증여론』, 이상률 역, 한길사, 2011.
배림아, 「조선후기 저주사건의 사례와 그 특징 :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2010.
성기동, 「문헌설화의 상징적 해석 가능성 연구」, 『硏究論集』 제11집, 중앙대 대학원, 1992, 23-50면.
이강엽, 「보은담(報恩譚)의 유형(類型)과 의미(意味)—“교환(交換)”과 “증여(贈與)”의 측면에서—」,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227-261면.
이강옥, 『한국 야담의 서사세계』, 돌베개, 2018.
이경하, 「『삼강행실도』의 폭력성 재고—열녀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453-483면.
이정우, 『개념-뿌리들』, 그린비, 2014.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 연구」, 『성곡논총』 제30집 1권, 성곡언론문화재단, 1999, 95-152면.
정준식, 「휘흠이야기의 개변양상과 의미변화」, 『국어국문학』 제33집, 부산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6, 163-183면.
정환국, 「18세기 후반 한문단편의 성격—한문단편의 세속화적 경향과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제54집, 한국고전문학회, 2018, 185-218면.
홍나래, 「조선후기 가부장 살해 소재 설화의 문화사회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42집, 한국구비문학회, 2016, 305-339면.
_____, 「조선후기 문헌설화에 나타난 주체의 윤리적 위기의식과 책임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제53집, 한국고전문학회, 2018a, 299-333면.
_____, 「조선후기 남녀 간 응보적 관계 맺기 설화를 통해 본 윤리적 주체 형성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제51집, 한국구비문학회, 2018b, 75-104면.

【Abstract】

## A study on the subjectivity of human-beings of the lower class in the late Joseon stories—Reorganization of social relations through gift and moral justification—

Hong, Na-Rae*

In this paper, I studied three types of stori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se stories introduced three special characters, one is the trickster man who fought a bear, another is the lower class man who pretended a noble man, and the other is the woman who sincerely prayed for 25 years. I have noticed the problem of establishing a new social relationship between lower classes and noble man in these stories, therefore I examined what were their moral identity and how they could gain public recognition, even the characters were cracking their ethics of caste system in some ways.

They fervently pursued their desires which seemed impossible in reality. In order to escape the norms of reality, they imitated mythic hero's behavior or gave the gift generously which aroused the fundamental moral orders in community, and then tried to establish new social relations.

People are afraid and attracted by divine or transcendent power, so the experience of divine or transcendent power makes the people judge beyond reason. The story showed mythical violence when the notorious man were fighting with great bear, the other stories showed hidden violence when lower class person tried to gift an immense wealth or powerful pray for high class person .

I interpreted main action of these stories, that is lower class person threatened the social order through violence, gifts, and blessings. Because those days, the lower class people seemed to follow the ethics and norms of the society, but at the same time they seeked for new morality which make theirselves to become their own subjectivity of human-beings.

* Research professor, Theological Seminary, Sungkonghoe University.

Keywords: pray, lower class, subjectivity of human-beings, gift, moral justification, struggle for recognition, No Gui-Chan, Choi Seung-Seon.

접수일: 2019.06.30 ‖ 심사일: 2019.07.16 ‖ 게재확정일: 2019.08.16